

돌리벽화 보고 응팔 탐방...아이 손잡고 신나게

(응답하라1988)

서울 북쪽의 도봉구는 아기자기한 골목길 탐방부터 드라마 명소 순례, 멋진 예술체험, 맛집 탐방, 그리고 자연과 하나되는 생태관광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많은 지역이다. 서울관광재단(대표이사 직무대행 주용태)은 가족의 달 5월, 이동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가볍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나들이 코스로 도봉구의 명소들을 추천했다.

돌리 탄생한 쌍문동...체험형 돌리뮤지엄 눈길 ‘응답하라1988’ 배경 쌍문시장, 옛 감성 그대로 평화문화진지,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재탄생 창포원, 5월이면 붓꽃·꽃창포 군락 만개 장관

●아기공룡 돌리와 응팔, 추억을 걷는 거리

7080세대에게 한국의 대표 캐릭터를 묻는다면 대부분 돌리를 먼저 꼽을 것이다. 돌리는 김수정 작가가 1983년 월간지 보물섬 4월호에 처음 게재해 10년 4개월이나 연재했던 ‘아기공룡 돌리’의 주인공이다. 이 돌리가 바로 도봉구에서 탄생했다. 김수정 작가가 돌리 연재를 시작할 때 작업실이 쌍문동이었다.

그래서 도봉구에는 돌리를 테마로 한 볼거리가 있다. 돌리뮤지엄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캐릭터 박물관이다. 돌리뮤지엄 주변에는 돌리와 친구들의 익살맞은 모습을 담은 돌리테마거리가 있다. 쌍문동의 중앙천 지류인 우이천은 돌리가 빙하에 갇혀 떠내려 오다가 고길동의 딸 영희에게 처음 발견된 곳이다. 그런 인연으로 우이천 쌍문교-쌍한교-수유교 구간 제방에는 돌리 테마의 벽화가 있다. 길이가 420m로 단일 캐릭터 벽화로는 국내에서 가장 길다.

쌍문동은 또한 ‘응팔’이란 애칭으로 사랑받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주요 무대다. 쌍문역 3번 출구 앞 쌍문시장 골목 모습을 세트로 재현해 드라마에 등장시켰다. 지금도 이곳에 가면 드라마 속 약국, 금은방, 덕선이에 집 등의 모티브가 된 가게와 골목을 만날 수 있다. 쌍문역 3번 출구 쌍문약국 앞에는 ‘응팔’의 장소가 표시된 쌍문3동 마을 지도가 있다.

쌍문역 2번 출구 쪽은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과 카페가 모여 있어 ‘쌍리단길’이라고 부른다. 예전 주택가 골목 감성이 남아있어 맛집 탐방이나 SNS 인증샷을 위해 사람들이 찾는다.



쌍문동 우이천의 쌍문교-쌍한교-수유교 구간 제방에 조성한 돌리벽화길. 만화가 김수정의 쌍문동 작업실을 재현한 돌리뮤지엄 뮤지엄동 3층 ‘김파마의 작업실’, 장갑차와 전차를 전시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평화문화진지(위부터 시계방향).



쌍문동 우이천의 쌍문교-쌍한교-수유교 구간 제방에 조성한 돌리벽화길. 만화가 김수정의 쌍문동 작업실을 재현한 돌리뮤지엄 뮤지엄동 3층 ‘김파마의 작업실’, 장갑차와 전차를 전시한 복합 문화예술공간 평화문화진지(위부터 시계방향).

●자연과의 조화, 평화문화진지와 창포원

2017년 개관한 평화문화진지는 옛 군사시설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독특한 건립배경을 갖고 있다. 군사적 필요성이 사라지면서 장기간 방치했던 시설을 2016년 도시 재생을 통해 지금의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시민동, 창작동, 문화동, 예술동, 평화동 등에 각각 3~7개의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고, 스튜디오에는 여러 예술 분야의 작가들이 입주해 시민과 함께 문화창작 활동을 펼친다. 이곳 옥상정원에 올라가면 절반은 지붕을 덮지 않아 절거된 시민아파트의 흔적이 그대로 보이도록 꾸몄다.

도봉산과 수락산, 중앙천 사이 도봉동에 있는 창포원은 붓꽃 특화 식물원이자 생태공원이다. 도봉산악이

바로 옆인데 출구로 나하면 눈앞에 전원적인 풍경이 펼쳐져 교외로 나들이 나온 기분이 든다. 창포원에서 볼 수 있는 붓꽃과 식물들은 노랑꽃창포, 부처 붓꽃, 타래붓꽃, 범부채 등 13종의 자생붓꽃과 117종의 독일 아이리시스다. 마침 5월이면 붓꽃과 꽃창포 군락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붓꽃원과 꽃창포원 옆에는 습지원이 있다. 꽃창포원에서 도봉산을 바라볼 때 습지원 수면에 산봉우리 반영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일품으로 소문났다.

이밖에 도봉구에는 연산교 묘, 세종대왕의 딸 정의공주 묘, 문화재 수집가 강승 전형필의 고택, 독립운동가 함석헌의 기념관, 시인 김수영의 문학관 등 역사·문화 명소도 많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코오롱스포츠, 현대카드와 하이킹 제품 팝업 전시

아웃도어 브랜드 코오롱스포츠가 30일까지 서울 청담동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에서 팝업 전시(사진)를 진행한다. 코오롱스포츠와 현대카드 트래블 라이브러리가 함께 기획한 전시로 ‘Travel Theme 60, Hiking’이 주제다. 하이킹에 어울리는 코오롱스포츠의 용품과 콘셉트 스토어 숏컷상회, 숏컷618에서만 판매하는 숏컷굿즈를 소개한다. 숏컷은 코오롱스포츠의 심볼인 상록수를 한글로 표현한 것으로, 코오롱스포츠는 새롭게 변신하고 있는 브랜드의 분위기를 전하고자 숏컷굿즈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컬럼비아, ‘뉴튼 릿지 플러스’ 민트색 선보



글로벌 아웃도어 스포츠 브랜드 컬럼비아가 화사한 색감이 돋보이는 ‘뉴튼 릿지 플러스 W P AMPED’ 민트 컬러(사진)를 출시했다. ‘뉴튼 릿지’ 시리즈

는 출시 때마다 품절 대란을 일으키는 컬럼비아의 베스트셀러 등산화로 스웨이드 소재의 정통 등산화 디자인과 젊은 감각의 컬러를 더해 2030 여성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제품이다. 컬럼비아 고유의 방습 및 투습 소재 기술인 ‘웬니테크’와 효과적인 방수 기능을 갖춘 워터프루프 멤브레인 구조를 적용해 장시간 신어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해준다.

완주, 5월 한 달간 ‘프리포즈 축제’ 온라인 진행

전북 완주군은 5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프리포즈 축제를 개최한다. 31일까지 한 달 동안 SNS 이벤트를 실시하고 22일과 23일은 술박물관 와인관에 마련한 스튜디오에서 완주군 유튜브 채널(완주군·YOU TV)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SNS 이벤트는 완주군 관광채널인 ‘완주여행의 모든 것’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22일과 23일의 라이브 방송에서는 로맨틱 포레스트 in 완주, 랜선 완주여행, 완주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프리포즈 퀴즈쇼 등을 진행한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thuki@donga.com

사전예약제·다이빙·서핑...확 달라진 ‘캐리비안 베이’ 21일 개장

소독·방역 전담 가드 배치...방수 마스크 무료 지급

용인 에버랜드 워터파크 ‘캐리비안 베이’(사진)가 21일 개장한다.

21일 캐리비안 분위기로 변신한 아쿠아틱 센터를 시작으로 야외파도풀, 메가스팀(이상 29일), 아쿠아루프, 타워 부대랑고(이상 6월12일) 등을 순차 오픈한다. 특히 올해는 이용 방법과 주요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캐리비안 베이로 이용하려면 방문일이 지정된 입장권을

사전 구입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방문일을 미리 예약 후 이용해야 한다. 모든 입장객에게 물놀이용 방수 마스크를 무료로 지급한다.

사위실은 한 칸씩 띄어 운영하며 타워, 드라이기 등 대여용품은 소독 후 개별 포장해 제공한다. 락커는 사전예약 규모에 따라 총 5단계로 이용 간격을 띄워 운영한다. 아쿠아틱 센터에는 신발 락커를 새로 설치했다. 인명구조 전문가인 라이프가드와 별도로 소독 및 방역 전담의 안심 가드를 곳곳에 새로 배치해 운영한다.

또한 다이빙과 서핑 등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특별 운영한다. 사전 예약을 통해 21일부터 이



용 가능하다. 프리 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머메이드 다이빙, 서핑 등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입문자 코스부터 자유체험, 자격증 취득까지 레벨에 맞게 이용할 수 있다. 캐리비안 베이 파도풀과 다이빙풀, 서핑라이드 등에서 주야간에 일 반고객 이용 시간과 겹치지 않게 진행한다.

김재범 기자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5월 21일 (금) 음력: 4월 10일 문의 : (02) 812-1201, 도원학당											
	쥐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소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호랑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토끼	행운색: 검정 길방: 북		용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상대방과 완전히 의견과 방향을 달리하는 운기이다. 이럴 때 팔까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면 대립은 격렬해지고 결과가 나빠진다. 지금의 기운은 쇠하여 있다. 헛된 고집을 버리고 친애와 협조에 마음을 쓸 일이다. 매사 법을 지켜야 한다.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함이 필요한 때다. 급전적인 여건도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아가라. 책임 있는 자세와 확고한 자기 노력이 뜻을 실현시킨다. 분쟁이 있다면 이쪽이 유리해진다. 학업에서 두각을 나타낸다.		문명이 과도하게 진보하면 퇴폐의 미를 좋아하게 되어 마침내 소박한 생명력을 잃고 만다. 개인에게 있어서는 외면만을 치장하고 내면적인 깊이를 잃고 만다. 매사 외견상의 화려하고 성대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		샘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가늘프고 의지할 것이 못되나 나중 에 강이 될 수도 있다. 다만 가능성이 가지고 있으므로 올바르게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어둠도 답답하며 고뇌 속에 머물러 있는 때에는 경거망동을 삼가 하라.		어떤 일에서 다른 일로 바뀌어지는 운기의 날이다. 그러나 개혁 을 급격히 행하기는 어려우며 서두르면 실패를 초래할 수도 있다. 신념을 가지고 끝까지 계속함으로써 좋은 결과가 얻어질 것이다. 혼자서 일처리 하지마라.		창고에 곡물이 산과 같이 쌓여 있는 운기이다. 대방을 품은 자는 먼저 힘을 쌓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 위험이나 장애도 당당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비교적 안정된 때이므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의 계획을 세우고 착수하라.							
	말	행운색: 청색 길방: 동		양	행운색: 적색 길방: 남		원숭이	행운색: 검정 길방: 북		닭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돼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금전적인 이득과 함께 이성이나 귀인의 도움이 따른다. 자신의 명예에 관한 행동이나 금전 관계도 원활하나 과감한 행동이나 처세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서류상의 문제는 정확한 확인 및 보관이 필요하다. 망신수가 따를 수 있다.		한낮의 암흑처럼 절정에 달해 있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쇠퇴의 그늘이 지므로 겉은 화려하고 활기가 넘치지만 내부에는 격정이나 갈등, 비밀 등이 내포되어 있는 때이다. 이런 때는 매사 조지일꾼의 자세로 밀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태연하게 움직이지 않는 산의 운기이다. 심사숙고해서 경거망동을 삼가야 할 때다. 경솔히 나아가면 산에 산이 중첩하는 난관에 부딪힌다. 계획은 곧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기를 기다리며 심신을 안정시키기가 좋다. 선배와 상의하라.		자신의 콤플렉스에 빠지기 쉬우며 능력의 한계로 인한 피로감이 쌓이기 쉬운 때이다. 그러나 점차 지금까지의 상태에서 벗어나 활동의 범위를 넓혀감에 따라 뜻이 관철되는 계기가 조성된다. 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라 재미 본다.		사람의 턱과 같은 운기의 날이다. 사람은 턱을 움직이면서 음식을 씹어 먹고 육신을 기른다. 이처럼 턱은 만물을 기르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병이나 화 또한 입을 통해 들어오고 나간다. 구설수나 과식으로 인한 소화불량을 주의하라.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58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모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릉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l@donga.com			